

힙합 스타일의 예비사회적기업 분투기 -주식회사 정글메이커-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진경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일상 속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가고 있다. 그 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예술, 문화 공연 분야가 아닐까 한다.

가을, 축제의 계절을 앞두고 천안, 아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청년들과 함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씬(Scene)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정글메이커의 임대건 대표(이하 임 대표)를 만나봤다.



2022년 아트페스티벌 행사(사진 제공: 정글메이커)

임 대표는 정글 메이커의 대표이기 이전에 힙합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음악을 하다가 천안에 왔는데 처음에 천안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천안에도 음악하는 동생들은 많은데 그에 따른 문화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킹을 해보자’ 하고 버스킹팀을 꾸렸는데 진행이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도 음악을 하기 위한 환경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음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음악을 하려면 결국은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임 대표는 ‘무작정 그렇게 서울로 가는 것보다 그냥 난 동네에서도 이렇게 음악하고 예술 활동하면서도, 유명해지는 것까진 아니어도 우리가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원 사업 등을 알게 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 같은 일정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간이사업자부터 시작하게 오늘까지 온 것이라고 한다.



청년 문화예술 방위대 행사 1(사진 제공: 정글메이커)

단순한 매니지먼트 업무 등 여러 가지 했던 일들 그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궤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주변에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2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을 보

면 음악을 전공하다가도 그 길을 계속 정도(正道)로 가기보다 그 곁에 있는 직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글 메이커가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음악을 하는 동생들과 음악을 계속 같이해보려고 지역에서 같이 만든 팀 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지나온 길을 쪽 돌이켜보니까 제가 문화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저와 같이 일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생기구요. 음악이나 연기를 하다가, 아니면 평소에 예술이 관심이 있던 친구가 문화기획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죠.”



청년 문화예술 방위대 행사 2(사진 제공: 정글메이커)

하지만 그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사실 천안, 아산 모두 기획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지역에 있는 기획사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뭔가 어떤 한 문화나 한 장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파는, 뭔가 대중적인 것을 공격적으로 하나간다기보다는, 관에 있는 행사를 받아서 하는 기획이 대부분인 거죠. 티켓팅 공연이라든가, 대회라든가...”

지역에서 지역 문화축제를 빼면 대체 문화 활동이 뭐가 남느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역 문화축제를 대행하는 대행사들은 기획사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진짜 예술을 접해보지 못해 목말라하는 대중들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은

사실은 정글 메이커도 아직은 시작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문화기획에 꿈을 가진 청년들이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서 예술을 하던 청년들이 기획일도 배워보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싶고, 저희도 뭔가 새롭게 좀 티켓팅도 하고 이런 문화들을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직은 지역 문화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일정 예산을 받았다 해도, 내빈들도 모셔야 하고 시스템 들어가고 이런저런 것 챙겨야 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다 보니 특정 팬덤이 아닌, 지인들 대상으로 행사가 꾸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예술인 발굴이라든가, 뭔가 제대로 된 예술 현장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청년 문화예술 방위대 행사 3(사진 제공: 정글메이커)

“저희 회사명이 원래 「럭스 레고」였는데 「정글 메이커」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을 바꾸고 법인이 되면서 저희가 도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직은 콘서트라든가 지역축제 등 소규모의 공연을 하지만 ‘하나에 얼마 줄게, 공연 한 팀 서 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뭔가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축제 안의 콘텐츠로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가다 보면 뭔가 좀 전문

적인 활동,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가 됐죠.”

지역에서는 그러한 발걸음 하나 내딛기에도 아직은 굉장히 많이 힘이 든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하나의 콘서트, 힙합, 아니면 밴드, 이런 식으로 뭔가 통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풍토도 아직 거의 없고. 대행사들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 등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글 메이커도 어려운 것들을 개척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운영 자금이 될 만한 행사들에 많이 쫓기기도 한다. 그래서 정글 메이커는 그들만의 바이브를 담은 예술 활동을 만들고, 해보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하고 싶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끝없이 해오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꾸준한 매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기획을 배우고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배우고 서울로 올라가거나 다른 직장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회사도 이런 인재들을 케어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찾게 된 것이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이란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

정글 메이커 사업 영역은 다양한 예술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이 주(主)이고, 보컬, 밴드, 싱어송라이터, 힙합 분야 등이 있다고 한다. 임 대표는 현재도 힙합을 하는 힙합 아티스트이고, 대학에서는 연기를 전공했다고 한다.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특히 1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를 서브 컬처 인프라로 꼽는다. 서브 컬처 인프라라면 예를 들어, 촬영, 앨범 워크를 해주는 사람들, 작곡, 작사가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라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서울과 비교해 지역은 아직 서브 인력이 많이 없어서 임 대표는 직접 작곡을 배워 작곡 활동도 하고 있다.

정글 메이커의 경영 목표 중 하나인 지역 내 인프라를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현황을 물었다. 다행히 10년 전보다 인식은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했다. 처음에 천안에 와서 첫 공연 의뢰를 받았는데, 그 당시 힙합이 굉장히 핫한 장르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안받았던 것이 ‘유치원에 와서 욕이 안 들어간, 교육적인 내용의 힙합을 만들어서 1시간 정도 공연을 해줄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음향 장비가 없으니 음향 장비를 가져와 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연료 10만 원을 받고 공연을 했다고 한다. 그다음에도 관에서 하는 큰 축제에서마저도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에게는 큰 이득이 아니냐는 인식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은 청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야’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처우 면에서는 아직도 서울과 비교해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 등은 앞으로 발전돼야 할 부분이 더 많다. 하지만 천안에도 드디어 사설 녹음 시설이 생겼고, 생기고 있고, 연습실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원도 많이 늘었다. 그런 시설들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두 가지, 공간적인 인프라와 기획의 부분, 기획 인력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없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고, 정글 메이커와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청년 문화예술 방위대 행사 4(사진 제공: 정글메이커)

임 대표에게 이제까지 10년을 해오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일 중 보람되고 기억나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저희 회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된 후, 주변에서 좋은 제안도 많이 받으면서 계속 커리어 하이로 찍고 있거든요. 그 중 최근 일인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9월 18일에 개최했던 ‘청년문화예술방위대 art 041’ 축제였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로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거든요. 미술이라든가, 극작이라든가, 댄스, 무용, 이런 건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4월에 ‘충남 청년 예술인총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시는 예술인분들이 많이 모이게 됐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3,000만 원짜리 지원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저희가 주체적으로 A부터 Z까지 행사를 다 치렀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에 보람됐던 일이네요.”

작년에 했던 것은 ‘천아제일문화대회’로, 천안 아산 행정 협의 사업이라는 문화 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임 대표가 기획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천안과 아산에 있는 예술인들이 좀 제대로 된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는데 거기서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됐었고, 국무조정실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도 됐다고 한다. 작년의 이런 좋은 사례들로 인해 올해 다시 ‘천아제일문화대회’ 같은 행사들도 자주 생기고, 이제 청년들과 청년 아티스트들을 더욱 인정해주려는 축제나 기획의 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했다.



공연 모습(사진 제공: 정글메이커)

정글 메이커라고 항상 성공적인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일 힘들었던 점은 아직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다.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일단 후원이 없어서 공연 예술적인 연구가 힘들고, 후원 인 프라도 없다. 공연장도 소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큰데 서울의 경우는 소극장이 많아서 서로 적은 금액이라도 모으면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천안, 아산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문화에 관한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다 보니 연구를 시작하려면 아주 큰 각오를 해야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하고 웃어넘길 수 있으려면 실패를 훌쩍 넘을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임 대표는 2011년 즈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딱 한 군데를 찾았는데 그게 천안시청 봉사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봉사홀을 빌려서 공연을 했는데 임 대표는 그때 결과적으로 그 연구를 한 번 하려고 3,000만 원의 빚을 진 것이다. 생활이 되지 않아서 막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임 대표는 그러한 연구 분야에도 예산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 지원의 대부분이 큰 조직에 편중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는 특수적인 한계이기도 하다며 아쉬워했다. 지역에 올수록 간혹 폐쇄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1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점점 무게감을 느낀다. 임 대표 자신이 공연을 열 수 있으니까, 돈을 못 벌어도 되니까, 티켓 공연, 힙합, 디너쇼, 락 공연 등 기획자가 상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후원 시스템이라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자비로 그런 걸로 해결하려다 보니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점이 어려웠다. 같이 소속돼 있어도. 공연을 꾸준히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 시설을 항상 좋은 시설로 준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 장소도 마찬가지로,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나 회사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서울을 가야 하는 게 맞나 봐’ 하면서 서울로 가는 친구들도 아주 많고,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많이 했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책정해줘야 할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경영학적으로 과연 될까?’ 임 대표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계속 실패로 이어졌었다고 한다. 회사 파산도 해보고, 사채도 써보고 하면서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하며 좌충우돌하며 계속 실패하던 중에 도전한 것이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도 받으면 인재들을 지역에서 키우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모임을 통해 오래되신 지역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공연의 기회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임 대표의 그간의 고민과 시도가 빛을 발하게 된 순간이었다.

요즘은 정글 메이커의 사업 분야 중 교육 서비스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 대표가 힙합에서 연기 분야까지 전문적인 강의를 맡고 있고, 보컬 개인지도 등도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있어 가능하다. 미술, 국악 등의 분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능하다.



전문교육 강의 모습 (사진 출처 - 정글 메이커)

특히 임 대표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통한 심리 치료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힙합이 전공인 만큼 가사에 솔직한 자신만의 감정을 담고, 그것을 분출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오랜 활동을 통해 자신이 먼저 경험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내용과 접목시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줄 수 있는 특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삼교고등학교에서 시범 강의를 해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또한 요즘 뜨는 스트리트 댄스도 학교에 찾아가서 알려주고, 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무대도 해보는 등 좋은 경험들이 있었다. 임 대표는 학생들의 반응을 본 후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천안은 2020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의 문화자주권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분야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 분야의 사회적기업인 정글 메이커가 우리 지역의 문화 산업의 중심에서 선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정글 메이커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